

# 기독교 대학생의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이 혜 진  
(Ed.D., 성결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원확신에 따른 인지적 편향을 알아보고,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측정도구는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Revis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R-GABS)와 하나님 표상 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적 편향은 현존과 도덕,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인지적 편향이 높을수록 현존과 도덕,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에게 인지적 편향을 교정해 주는 작업이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심단어:** 기독교상담, 인지적 편향, 인지행동치료, 기독교 대학생, 하나님 표상

## I. 여는 글

인간의 기능에 있어서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최근에 대두된 주장은 아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다양한 접근 중에서 인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지·

행동·정서 치료이다. Albert Ellis에 의해 발전된 ‘인지·행동·정서 치료 요법’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믿음(신념)들을 도움이 되는 믿음들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1)</sup>

상담 및 심리 치료에 대한 인지·행동·정서적 접근에서 볼 때 합리적 신념은 우리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획득해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이며 독단적인 것으로서 우울, 불안 죄책감과 같은 부적절한 부정적 정서를 유도하여 적응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 역기능적 행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적절한 합리적 사고로 바꿀 수 있다면 기능적 행동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적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비합리적 신념은 Ellis의 인지 치료의 중요개념으로,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정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의 오류에 의해 정서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인지적 편향을 Ellis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였다. 특히 Ellis는 비합리적 생각의 핵심요소를 당위적 사고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에 대한 당위로 구성되며 이런 당위적 사고를 하면 과장적 사고, 인간 비하적 사고, 낮은 인내성이 파생된다고 하였다.<sup>2)</sup> 과장적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보다는 훨씬 더 과장해서 생각한다. 인간 비하적 사고는 사람들을 잘못된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 또는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그 형태가 자기 비하 또는 타인 비하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인내성은 욕구좌절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참지 못하는 경우이다.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증가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기주장성, 우울수준의 증가, 특성불안, 시험불안, 상태불안, 부적응 증세의 증가, 신경증 환자, 정신병의 징후 등이 높음을 보였다.<sup>3)</sup>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개인의 인식 체계 내에서 사고내용의 비합리성을 형성하여 생활태도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

정하면 개인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양식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초기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초기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라 사물,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관 등을 배우면서 동시에 신념체계나 성격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아동은 부모의 칭찬, 벌 등에 따라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칭찬, 강화, 지지를 받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렇지 않는 행동들은 거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양육자로부터의 행동 기준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기저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신념들이 내재되어 있다. 결국 양육자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비합리적 신념들은 개인의 삶의 경험, 교육, 종교경험 등을 거치면서 자신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표상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초기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형성된 비합리적 신념과 이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의 교정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sup>4)</sup>

사고란 현재의 상황에서 이미 획득한 기억체계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를 적용시키는 과정과 지적 체재인 개념조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사고과정의 중심은 개념판단과 추리의 작용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고는 하나님의 본성, 역사 안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인간들의 행위, 성서와 예수를 통하여 제시되어진 것을 향한 사고로서, 종교적 사고를 이루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 활동, 신성성, 사랑, 정의, 인간과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개념과 다르다.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사고하고 그리는 상(象)이 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개념과 다르다. 하나님 개념이 사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적 체계라면, 개인이 그리는 하나님 상이란 삶의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 경험, 기억, 느낌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나 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 상은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

라지고 왜곡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상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다.<sup>5)</sup>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 영역과 개인적인 종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인간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신학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차원과 관계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종교에 대한 인간의 심리 내면적 접근을 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불가지론적(agnostic)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경험의 대상 표상으로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상의 정의는 “의식 안에 상징, 이미지, 환상, 사고, 감정 혹은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의식적 심리 조직”으로 정의된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자각과 인상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대상체가 마음에 새긴 대상체와 비슷한 자국 즉 인상이다.<sup>6)</sup>

따라서 하나님 표상(the representation of God)은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또는 관계적인 경험으로써 어린시절의 상들, 감정들과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 중요한 타인 그리고 추월경험이나 절정경험을 포함한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표상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된다.

하나님 표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개념이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의 신념이다. 하나님 개념은 교육, 사고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발달된다. 하나님 개념은 대부분 이차 사고과정 단계에서 만들어지며, 형이상학적 논리에 의해 존재 또는 비존재가 증명되는 신학의 접근이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 개념은 학습에 의해 발달되는 명백한 구조이지만, 하나님 이미지는 경험에 의해 발달되는 잠재적인 구조이다.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 개념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며 독립적인 것 같지만 무의식적이고 정서적인 과정으로의 하나님 이미지와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인 하나님 개념은 서로에게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이 느끼는 하나님 개념과 하나님 이미지가 현저히 다를 경우, 개인적으로 불

안, 죄책감과 분노같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 표상은 정서적 경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님 개념과 구분 된다. 또한 심리내적, 대인 관계적 의미를 갖고 사실 보다는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도 구분된다. 하나님 표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에 형성된 비교적 안정되고 지속적인 상을 의미한다. 이렇듯 하나님 이미지와 표상은 많은 저서에서 그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 이미지를 통합하여 하나님 표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자 한다. 종교가 개인의 아버지 원형(imago)이라는 Sigmund Freud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Ana-Maria Rizzuto는 부모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동시적으로 하나님 표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Rizzuto는 아동기 동안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되고, 전 생애 동안 수정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살아있는 신의 탄생”으로 보았다.<sup>7)</sup>

하나님의 표상은 하나의 원형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부모뿐만 아니라 상상속의 소망하는 두려운 부모 역시 신의 표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표상은 마음속에 살고 있는 어떤 실체들이 아니며, 기억을 포함하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며, 정신적 삶의 전체성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 표상은 어떤 발달단계에서든지 표상을 형성하는 순간에 대상과 가졌던 지배적인 정서적 경험을 표상화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표상에 집중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 창조의 유형이다.<sup>8)</sup> 하나님 표상은 정신적 실재에 대한 느낌, 즉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제공한다. 비록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인지되거나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 대개 자아-동질적이고, 하나님을 상징이나 징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한다.<sup>9)</sup>

아이가 초기 유아기에 어머니에게서 경험한 기본적인 신뢰는 나중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로 사용되며, 아이가 어머니의 긍정적인 표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종교경험을 하고,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각 개인의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은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존재하는 분이다.<sup>10)</sup>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 표상의 형성은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고난을 통찰하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 하도록 도와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올바른 하나님 표상은 내적인 자유를 촉진시키고 인간들 간의 참 만남과 인간들 간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선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선한 세상과 만나도록 도와준다.

대학생 시기는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중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자아정체감을 완성하는 시기로, 장휘숙<sup>11)</sup>은 대학생이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자아정체성의 마무리, 학문, 직업, 경력의 성취, 사랑, 성, 결혼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이 되어서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함께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이런 점은 신앙정체성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이 시기는 생애에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활동적인 시기로 자신이 열렬하게 믿을 대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시기이므로, 추상적이고 이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통한 지식의 증가로 인생의 근본 문제 및 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며 영원세계를 동경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 왔던 공동체내의 이야기, 신앙경험, 교육 등에서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경험된 하나님 표상을 재확립하고자 한다.<sup>12)</sup> 따라서 대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적인 하나님 표상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인지적 편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내담자들의 인지적 편향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인지

적 편향과 하나님표상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곧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지적 편향을 인식시키고 합리적 신념으로 발전시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 등을 교정하여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신앙행동 중에서 구원확신과 예배참석에 따른 인지적 편향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구원확신과 예배참석에 따라 인지적 편향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인지적 편향은 하나님 표상과 관계가 있는가?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인지적 편향

REBT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될 가능성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될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REBT에서 인간은 합리적, 즉 울퉁은 사고를 할 수도 있으며 비합리적, 즉 왜곡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잠재기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은 가치를 보존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고하고, 말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스스로 성장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스스로 파괴하고, 일을 뒤로 미루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미신에 빠져들고, 참을성이 없고, 완벽하려 하며, 자기를 비난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잠재력도 가졌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Albert Ellis는 인간이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생물학적 존재임을 부인한다.

오히려 인간은 독특하고, 고유하며, 한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지각한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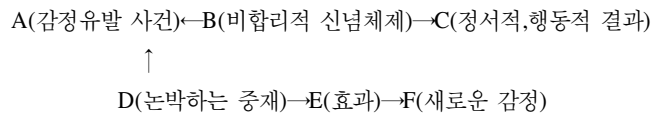
Ellis의 성격이론의 체계인 ABC이론은 인간의 정서적, 성격적 장애가 생기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이란 주로 사고의 한 형태이거나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서적, 성격적 장애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고나 신념을 조정함으로써만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현재의 갈등과 고민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치료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잊혀졌던 과거 이야기를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도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얽혀있는 처리되지 않은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가 들어주는 데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Ellis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내담자의 정서적 혼란이나 고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담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내담자의 감정을 좌우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느 젊은이가 첫 사랑에서 실패한 후 우울증에 빠져들어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쉽게 상심을 떨쳐 버리고 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실의와 자포자기에 빠져 매일을 비판하게 된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 오는가? Ellis에 의하면 그것은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시험에 실패한 경험을 대단히 불편한 사건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는 하나,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어서 견딜 수 없다'고 까지 자학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REBT의 사상을 Ellis는 ABC이론으로 간단히 도식화 하고 있다.<sup>14)</sup> Ellis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을 대체하는 것이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영어의 ABC는 각각 선행사건을 의미하는 Activating event, 그리고 사고나 신념을 의미하는 Belief system, 결과를 의미하는 Consequence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C, 즉 정서적, 행동적 결과는 A인 선행사건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B인 신념의 체계 때문에 유발된다고 주장한다.<sup>16)</sup> 각각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2) 하나님 표상

하나님 표상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면서 대상 없이는 표상이 존재하지 않고, 표상 없이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따라서 대상의 이미지가 하나의 구조나 실체라기보다는 마음에 떠올려진 복합적인 과정 또는 한 개인의 방어적인 목적이나 적응적인 기제에 의해 억압된 과정이다.<sup>18)</sup>

Winnicott은 유아가 엄마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있을 때 엄마를 의미하는 중간대상을 찾게 된다고 한다. 중간대상이란 내적실재와 외적실재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의 대상이며 환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창조적인 세계이다. Rizzuto는 Winnicott의 중간대상 이론을 근거로 하나님 이미지는 특별한 환상적인 중간대상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현실에서 오는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긴장감에서 해방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환상기능을 사용하며 중간현상을 경험한다. 중간현상 또는 중간대상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기-통합과 응집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중간대상으로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 자신이 일차적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최소한의 느낌과 기본적인 자기 존중감을 유지시켜준다.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하는 개인의 하나님 표상이 지닌 표상적, 경험적, 그리고 환상적 차원의 역사는 그 이미지에 심리적 힘을 준다. 하나님 이미지의 심리적 한계와 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환상이 지닌 창조적 능력뿐만 아니라 근원적 대상들로부터 유래한다.<sup>20)</sup> 따라서 창조적 경험은 자기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치료에 이르게 하듯이 중간대상으로서 하나님 이미지의 탐색을 통하여 초기 부모와의 관계경험을 재해석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Rizzuto의 연구 이후 이론적 연구와 일상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izzuto는 개인의 부모와의 상호관계 내력에 의해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것이 정신적 평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제 일상사례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Buri & Mueller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내심이 많고 용서하는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은 경직되고 비판적이며 잘못을 꾸짖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sup>21)</sup>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Bernhard Groom에 의하면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와 자존감이 하나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sup>22)</sup>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에서 연산화는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선호도 및 생활 환경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3)</sup> 김귀숙은 자기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sup>24)</sup> 김경혜는 성별의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신뢰하는 부모, 부모의 신앙 유무, 고등학교의 유형, 예매출석 횟수, 회개경험 및 구원의 확신의 변인이 하나님 이미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 3) 하나님 표상과 비합리적 신념

개인의 신앙생활 및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신념들과 하나님 표상이다. 신념들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만약 합리적인 신념을 소유하면 건강한 행동양식을 취하게 되고, 비합리적 신념을 소유하면 우리의 행동양식도 불건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적이고 기대감이 높은 부모로부터 자라난 아동은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매사에 노력하며 애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잘 해야만 칭찬받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의 가치감을 획득하기 위한 수고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이

러한 행동아래에는 나는 완벽히 수행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내재되어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개인의 삶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며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과 삶의 양식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며, 우리를 존재적인 존재로 사랑하시는 분이요, 존재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갖는 완벽주의, 높은 자기기대, 좌절반응, 과잉 염려 등의 비합리적 신념이 수정되고 완화되어 좀 더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또는 교육 등을 통해 하나님 표상에 대한 인지의 왜곡을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sup>25)</sup>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와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5개교의 기독교 학생 185명, 비기독교 학생 126명으로, 총 31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비기독교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185명의 기독교 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기독교 학생	비기독교 학생	계	
학 년	1학년	93(50.3)	78(61.9)	171(55.0)
	2학년	15(8.1)	15(11.9)	30(9.6)
	3학년	39(21.1)	13(10.3)	52(16.7)
	4학년	38(20.5)	20(15.9)	58(18.6)
계	185(59.5)	126(40.5)	311(100.0)	

## 2) 측정도구

인지적 편향을 대표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수균<sup>26)</sup>이 번안한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Revis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R-GABS)를 사용하였다. R-GABS는 DiGiuseppe, Leaf, Exner와 Robin(1988)이 개발한 GABS를 서수균이 번안하여 탐색적 용인분석과 문항 분석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 5개의 하위 비합리적 신념 척도와 한 개의 합리적 신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하위 비합리적 신념 척도에는 성취에 대한 집착(7문항), 자기비하(6문항),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6문항),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7문항),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5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 신념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중간이다, 4: 동의한다, 5: 강하게 동의한다)상에서 평정되었다. 서수균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81에서 .87사이였으며, 비합리적 신념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92였다. 합리적 신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7이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하나님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난예가 개발한 ‘하나님 표상 측정도구’(God Image Assessment, GIA)를 사용하였다.<sup>27)</sup> GIA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방식으로 평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도구이다. GIA는 자아상과 타인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인 소속감(belonging), 승인감(goodness), 통제감(feeling of contro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두 개의 하위 요인이 있고 각 영역이 첫 번째 요인은 자아에, 두 번째 요인은 관계에 초점이 있다.

소속감은 임재(Presence)와 도전(Challenge)으로, 임재척도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도전척도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나가 더 도전 받기를 원하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승인감은 용납(Acceptance)과 긍휼(Benevolence)로, 용납척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존재인가?”를 측정하고 있다. 긍휼척도는 “하나

님은 나를 사랑하기 원하시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통제감은 영향력(Influence)과 섭리(Providence)로 영향력척도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며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능동태를 나타내고 있다. 섭리척도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당하는 것이며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수동태를 나타낸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	분	문항 수	Alpha	
인지적 편향	합리적 신념	7	0.70	
	성취에 대한 집착	7	0.82	
	자기비하	6	0.81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6	0.81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7	0.79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5	0.83	
	인지적 편향	38	0.92	
하나님 표상	현존	10	0.92	
	소속감	도전	10	0.85
		소속감	20	0.93
	승인감	용납	10	0.77
		공홀	10	0.83
		승인감	20	0.86
	통제감	영향력	10	0.88
		섭리	10	0.91
		통제감	20	0.94
	하나님 표상	60	0.97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  $\alpha$ 가 인지적 편향 0.92, 하나님 표상 0.97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구원확신에 따른 인지적 편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검증)을 하였으며, 인지적 편향 및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독교 학생의 구원확신과 예배참석에 따른 인지적 편향

(1) 구원확신에 따른 인지적 편향

기독교 학생의 구원확신에 따라 인지적 편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구원확신에 따른 인지적 편향

구 분	있다 (n=138)		없다 (n=47)		전 체 (n=185)		t	p
	M	SD	M	SD	M	SD		
합리적 신념	3.62	0.51	3.40	0.51	3.56	0.52	2.57*	0.011
성취에 대한 집착	2.66	0.68	2.62	0.60	2.65	0.66	0.35	0.72
자기비하	2.00	0.60	2.33	0.71	2.08	0.65	-3.15**	0.002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2.57	0.71	2.86	0.76	2.64	0.73	-2.38*	0.019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2.98	0.68	2.99	0.54	2.98	0.65	-0.08	0.938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2.37	0.70	2.57	0.58	2.42	0.68	-1.78	0.076
인지적 편향	2.51	0.48	2.67	0.45	2.55	0.48	-2.01*	0.045

\* p<.05, \*\* p<.01

합리적 신념은 구원확신이 있는 기독교 학생이 그렇지 않은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구원확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취에 대한 집착은 구원확신이 있는 기독교 학생이 그렇지 않은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비하와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은 구원확신이 없는 학생이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과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은 구원확신이 없는 학생이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인지적 편향은 구원확신이 없는 학생이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보다 높았으며, 구원확신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기독교 학생의 구원확신에 따라 인지적 편향을 살펴본 결과, 구원확신이 있는 기독교 학생이 그렇지 않은 기독교 학생보다 합리적 신념이 높았으며, 구원확신이 없는 학생은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보다 자기비하와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그리고 인지적 편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원확신이 합리적 신념을 가지게 하며, 자기존중감이나 좌절에 대한 내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2) 기독교 학생의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기독교 학생의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독교 학생의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구 분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			하나님 표상	
	현존	도덕	소속감	용납	공홀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합리적 신념	0.214** (0.003)	0.229** (0.002)	0.234** (0.001)	0.370*** (0.000)	0.271*** (0.000)	0.367*** (0.000)	0.213** (0.004)	0.210** (0.004)	0.221** (0.003)	0.285*** (0.000)
성취에 대한 집착	-0.100 (0.177)	-0.005 (0.949)	-0.060 (0.416)	-0.328*** (0.000)	-0.046 (0.530)	-0.216** (0.003)	0.026 (0.724)	-0.080 (0.277)	-0.032 (0.669)	-0.099 (0.182)
자기비하	-0.282*** (0.000)	-0.261*** (0.000)	-0.289*** (0.000)	-0.557*** (0.000)	-0.310*** (0.000)	-0.497*** (0.000)	-0.198** (0.007)	-0.213** (0.004)	-0.215** (0.003)	-0.341*** (0.000)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0.262*** (0.000)	-0.216** (0.003)	-0.256*** (0.000)	-0.446*** (0.000)	-0.246** (0.001)	-0.397*** (0.000)	-0.160* (0.029)	-0.229** (0.002)	-0.205** (0.005)	-0.296*** (0.000)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0.222** (0.002)	-0.110 (0.136)	-0.182* (0.013)	-0.222** (0.002)	-0.132 (0.072)	-0.203** (0.006)	-0.073 (0.322)	-0.187* (0.011)	-0.140 (0.058)	-0.185* (0.012)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0.191** (0.009)	-0.201** (0.006)	-0.207** (0.005)	-0.377*** (0.000)	-0.253** (0.001)	-0.361*** (0.000)	-0.140 (0.058)	-0.249** (0.001)	-0.206** (0.005)	-0.267** (0.000)
인지적 편향	-0.284*** (0.000)	-0.220** (0.003)	-0.270*** (0.000)	-0.511*** (0.000)	-0.273*** (0.000)	-0.450*** (0.000)	-0.162* (0.028)	-0.257*** (0.000)	-0.222** (0.002)	-0.323*** (0.000)

\* p&lt;.05, \*\* p&lt;.01, \*\*\* p&lt;.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편향은 현존( $r=-.284$ ,  $p<.001$ )과 도덕( $r=-.220$ ,  $p<.01$ ), 소속감( $r=-.270$ ,  $p<.001$ ), 용납( $r=-.511$ ,  $p<.001$ ), 공홀( $r=-.273$ ,  $p<.001$ ), 승인감( $r=-.450$ ,  $p<.001$ ), 영향력( $r=-.162$ ,  $p<.05$ ) 섭리( $r=-.257$ ,  $p<.001$ ), 통제감( $r=-.222$ ,  $p<.01$ ), 그리고 하나님 표상( $r=-.323$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인지적 편향이 높을수록 현존과 도덕, 소속감, 용납, 공홀,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하나님 표상은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 학생의 구원확신에 따른 인지적 편향을 알아보고,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신념은 구원확신이 있는 기독교 학생이 그렇지 않은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구원확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원확신이 합리적 신념을 가지게 하며, 자기존중감이나 좌절에 대한 내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합리적 신념은 하나님 표상과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으로 표상하는 것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취에 대한 집착이 높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존재'라는 승인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그리고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등도 하나님 표상과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인지적 편향이 높을수록 현존과 도덕,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합리적 신념의 지나친 타인염려는 하나님 이미지의 어느 하위요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던 황혜리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8)</sup> 따라서 앞으로 연구자들은 추후 연구에서 확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 대학생 상담할 경우,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에게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게 해 주는 작업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곧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비합리적 사고의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시키는 인지

적 재구조화의 REBT상담을 적용하면 불건강한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 등을 교정하여 건강한 학생들로의 성장을 이루는데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의 부적상관을 고려해 볼 때, 올바른 하나님 표상의 형성을 통해 인지적 편향이 교정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험이 개인의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여 정신건강 회복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수정하기 위해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는 것은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며, 올바른 하나님 이미지 형성은 비합리적 신념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 삶의 태도 및 정신건강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연구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첫째, 인지적 편향을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에 있어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인지적 편향의 변화만이 하나님 표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표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대인관계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또한 대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이므로 지역과 대상을 달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경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 2003.
- 김귀숙, “아버지상에 대한 해석학적 이론의 적용과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신학대학교대학원, 1998.
- 김난예.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신앙과 천』. 제30권(2002): 275-305.
- 김난예. “하나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40권(2002, 4): 47-69.
- 김사훈. “내면화 과정과 하나님이미지 형성간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05.
- 박강희. “하나님의 표상과 하나님 경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0.
- 박경애. 『인지. 정서. 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1997.
- 박민수.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01.
-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4.
- 연선화.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아동기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신학대학교대학원, 1997.
- 이해리.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 표상에의 접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5권(2004, 4): 1293-1310.
- 이혜진.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 진윤경. “영,유아기 하나님 표상 형성과 기독교 교육”.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04.
- 최인석. “유아기 심리적 경험과 성인의 하나님 표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1.
- 홍래경. “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신학대학교대학원, 2000.
- 황혜리.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4권(2003, 4): 867-81.
- Taylor, Charles W. *The Skilled Pastor: Counseling As The Practice Of Theology*, 황영훈 역. 『합리적 정서요법과 목회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2003.
- Ellis, Albert.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 서울: 학지사, 1995.
- Mardeleine, David & Wallbridge, David. *Boundary and Space: An Introduction to the Work*.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Greenberg, Jay R. & Mitchell, Stephen A.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Ellis, Albert.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Revised and Updated*. New York: Carol, 1994.
- Dickie, Jane R.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Images of Go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Jun. 1997): 25-43.
- Birky, Lan T. "Samuel Ball. Parental trait influence on God as an object represent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2 (Feb. 2001): 133-137.
- Lawrence R. T.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d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Feb. 1997), 214-26.
- Rizzuto, Ana-Maria.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Chicago University, 1979.

---

[ 후주 ]

- 1) Charles W. Taylor, *The Skilled Pastor: Counseling As The Practice Of Theology*, 황영훈 역, 『합리적 정서요법과 목회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0.
- 2) 박경애, 『인지 · 행동 · 정서 치료』 (서울: 학지사, 1997), 67-68.
- 3) 이혜진,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20-25.
- 4) 황혜리,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4권(2004, 12): 867-81.
- 5) 김난예, "하나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40권(2002,8): 47-69.
- 6) 연선화,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아동기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관한 한 실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 50.
- 7)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Chicago University, 1979), 41.

- 8)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87-92.
- 9)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98.
- 10) 김난예, "하나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48
- 11) 장휘숙,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10권(1997, 6): 123-25.
- 12) 황혜리 &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869.
- 13) 박경애, 『인지·행동·정서 치료』, 60.
- 14) Albert Ellis,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 (서울: 학지사, 1995), 13-15.
- 15) Talyor, *The Skilled Pastor: Counseling As The Practice Of Theology*, 131.
- 16) 박경애, 『인지·행동·정서 치료』, 67-68.
- 17) Ellis,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15-16.
- 18)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164.
- 19) 진윤경, "영·유아기 하나님 표상 형성과 기독교 교육"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4), 53.
- 20)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103.
- 21) 박강희,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23.
- 22) 김경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2003), 4-41.
- 23) 연선화,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아동기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관한 한 실례연구", 100-02.
- 24) 김귀숙, "아버지상에 대한 해석학적 이론의 적용과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원, 1998), 96-99.
- 25) 황혜리 &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871.
- 26)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4), 56.
- 27) 김난예, "하나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47-69.
- 28) 황혜리 &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876.

【 Abstract 】

Relationship of Cognitive Bias to the Image of God  
among Christian Undergraduates

Yi Hey Jin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gnitive bias of Christian undergraduates in association with their conviction of salv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gnitive bias and their image of Go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85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Revised General Attitude & Belief Scale(R-GABS) and a God image assessment inventory.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 cognitive bi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to belief in the presence of God, morality, a sense of belonging, tolerance, compassion, recognition, influence, belief in divine providence, a sense of control and the image of God. So it was found that the Christian students who had more cognitive prejudice were behind in terms of belief in the presence of God, morality, a sense of belonging, tolerance, compassion, recognition, influence, belief in divine providence, a sense of control and the image of God.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when counseling is provided to Christian undergraduates, it's effective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gnitive bias and their image of God in order to correct the cognitive prejudice of those who have the wrong image of God.

**Key words:** Cognitive Bias, REBT, Christian students, the image of God, Christian counseling.